

### “야생화 접목 ‘야생국화’에 도전할 것”

광주 서구청 국화전시회 주역 신민호 과장

“국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국향천리(菊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입니다. 국화향기는 천 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 리를 간다고 하는데 이 향이기가 막힙니다.”



지난달 3일부터 12일간 광주 서구청에서 국화전시회가 열렸다. 서구청사는 온통 진한 국화 향으로 뒤덮였고, 청사 안팎에 전시된 목간작, 분경대작 등 130여점의 분재와 700점의 대국 및 육국 국화는 청사를 찾은 이들에게 늦가을의 정취를 선사했다.

서구청 전시회는 국화의 매력에 푹 빠진 자칭 ‘국화 홍보대사’ 신민호(57) 서구청 새무과장이 있어서 가능했다.

신 과장은 지난해 열린 서구청 국화 전시회를 처음 보고 국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국화 사랑이 시작됐다. 국화 동아리에 가입해 정보를 얻고 전문가를 만나 국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2~3주 간격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국화 분재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이번엔 전시된 국화 분재 중에는 신 과장이 1년 동안 손수 만든 작품도 있었다.

신 과장은 “국화 분재는 관리만 잘하면 6~7년까지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쁜 가운데서도 주말 등을 이용해 서구청 내에 국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화분재 동호회를 만들 계획이다.

신 과장은 “올 초부터 국화를 가꾸었는데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기분이 좋다”면서 “국화를 알기 전부터 야생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국화를 접목시켜 야생국화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위안부 실상 널리 알리고 싶어 노래 만들었죠”

### 전국 최초 위안부 피해자 헌정곡 제작한 광주 알핀로제클럽

“푸른들 나뭇가리던 고운 땀기/달려진 단발머리 끊겨진 인연/치마고름 끝 면 하늘 그리운 고향/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긴 세월 서성이 다 지친 그림자/아직도 믿지못한 어린 발꿈치/손등 위 날지못한 나비였던가/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이제는 훨훨 날아 꽃길로 가자/울컥된 두 주먹 내민 손잡고/이제 가자 어서 가자/집으로 가자/이제는 집에 가자/집으로 가자.”

광주알핀로제클럽(회장 정병호)은 일본군 위안부 헌정곡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를 제작해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알핀로제클럽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노래를 만들어 지난 8월14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진행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순수 음악인의 모임인 광주알핀로제클럽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경계 없는 음악’, ‘소통하는 음악’, ‘서로 나누는 음악’을 지향하며 음악적 계발과 성취, 사회 정서 순화와 봉사 목적을 하고 있다.

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는 광주알핀로제클럽의 박순애 단장이 ‘작사’, 송석준 음악 감독이 작곡을 맡았다. 곡의 하이라이트인 후

남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서 불려 소녀상 단발머리 등 노래에 담아 10대~70대까지 연령층 다양 박순애 단장이 곡 작사 맡아

렴부분 요즘은 한국 요즘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김충철씨가 작곡해 의미가 남다르다.

가사를 쓴 박순애 단장은 “평소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남구 평화의 소녀상 설립 위원회 참여를 시작으로 위안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정도 요즘을 부르다 보니 단순히 우리끼리만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요즘로 만들어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무등산, 광주천 등을 주제로 노래를 하다가 사회적 문제인 위안부까지 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가사를 쓰면서 위안부를 형상화한 소녀상의 단발머리, 한복 등의 의미를 최대한 담으려고 했다. 또한 들려있는 발뒤꿈치, 나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헌정곡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를 제작해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광주알핀로제클럽. <광주알핀로제클럽 제공>

새 등의 의미에도 초점을 맞췄다. 노래를 만드는 기간 그리고 노래를 완성하고 부르면서 내내 가슴이 뜨거웠다.

“요즘 사회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저도 위안부에 대해 약자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위안부의 삶에 대해 알고나니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즘을 제목한 노래를 만들었죠.”

박 단장은 같은 여성으로서 누군가의 딸이였을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 우리 사회는 그분들께 적잖은 빚을 지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가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통해 위안부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연도 하고, 여러 행사에도 참여해 노래할 계획입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지방세무사회-日 시코쿠세리사회 교류간담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지난 27일 일본 시코쿠세리사회(회장 기요타 아키히로)와 제21차 국제교류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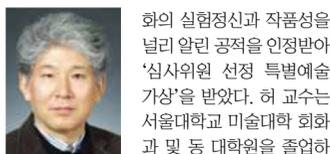
이날 간담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조사의 종류, 조사에 대한 세무사의 대응에 대한 주제로 양국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시코쿠세리사회는 1997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흑

김영록 회장은 “그동안 시코쿠세리사회와 광주지방세무사회 간 국제교류는 양 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분 한분 한분이 양 회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풍요로운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허진 전남대 교수 한국예술평론가협 ‘특별예술가상’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허진(사진) 교수가 제37회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장 장석웅)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했다.



한국예술평론가협회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예술종합평론단체로 해마다 각 분야의 최고 예술가들을 선정해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과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 및 ‘올해의 주목할 만한 예술가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허 교수는 올 한 해 수묵을 바탕으로 한 한국

화의 실험정신과 작품성을 널리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받았다. 허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에 재직중이며 남부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조선대병원 어업안전센터, 강진·해남서 어업인 건강교육

해양수산부에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는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이철갑)가 최근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연계해 강진군과 해남군에서 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공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양식, 전복 양식,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계지도자를 대상으로 어업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의와 예방법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어업인 재해 안전보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운동프로그램 등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대 ‘나눔&희망 사랑의 김치 배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최근 호텔외식조식학과 실습실에서 교직원봉사단, 학생회봉사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나눔&희망-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를 열었다. <광주대 제공>

### 전남여성플라자 여군간부 대상 인재아카데미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전남지역 거점 교육기관인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손문금)는 최근 제31사단 보병사단에서 여군간부 34명을 대상으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전남여성플라자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 ▲신동주(신신지업사 대표)·이정희씨 장남 명섭(취정연총전부소장)군 여우구(전남서부교육시설(주) 이사)·이은영씨 장녀 진이양=12월2일(토) 오전 11시50분 라페스타 4층 다이닝룸.
- ▲민경철(전 광주일보·취재감독 기획 대표)·이애숙 씨 차남 용규(정신건강 전문의)군 강승원(전 도시공사본부장·취토문상무)·황혜순씨 차녀 세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12월2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 4층.
- ▲주승기(주.일광기업 이사)·고(故)김복선씨 아들 양준(베드로)군 조기원씨 딸 아연양=12월9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용봉동 성당.
- ▲김정희(대신철물건설 대표)·주옥연씨 장남 건우군 김광설(성왕상사 대표)·이희숙씨 장녀 지은양=12월2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도천동 드림레스토랑 2층 베일리움.
- ▲이중원(사업)·정순옥씨 장남 병훈군 류상호(유상호책소폰교실 원장)씨 장녀

지현양=12월2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능성동 메종드보네르 1층 보네르룸.

### 동창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12월5일(화) 오후 6시 화랑공회관 062-224-1800.
- ▲승의고등학교 총 동문회 제19차 정기총회 및 회차 이 취임식=12월6일(수) 오후 6시30분 광주 서구 능성동 라페스타 웨딩룸 승의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김길성 010-8490-9292.

### 향우회

- ▲재광보성군 향우회(회장 박재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12월7일 목요일 오후 6시30분 광주 동구 KT문화센터4층.

###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방연시 위로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출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 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해 무료 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 ▲열린마을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모집

- ▲대촌FC 화·목 야간 축구 회원 모집=자격45세이상, 오후 6시30분 남구 대촌중학교 운동장 문의 010-4271-9659.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

- 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연 상담 062-351-1206.
-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사택/입향론, 비결복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문의 010-3609-8117.
- ▲청춘FC 토요일 축구 회원 모집=나이 40세 이상, 광주교육대학교 인조구장, 토요일 오후2시, 문의 010-2684-4490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꿈을 품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 부음

- ▲나순임씨 별세 김우관(남도일보 전남서부권 취재본부장)씨 모친상=발인 29일(수) 광주수완정례식장 2층 VIP실 062-959-4444.
- ▲박영희씨 별세 문병선·병일·병관씨 모친상 박태숙·김경숙씨 시모상=발인 29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정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201호 故임양태 님(여/83세)</b> 子/子婦: 안규문/조윤숙, 안규민/김영미, 안 민/이은숙 女/婿: 안영희/조영원, 정희/노문현, 진희/조홍수 孫: 안선종, 선주, 진철, 보현, 종한, 창수, 종철, 조병시, 현희, 재진 *발 인: 11월 29일 *장 지: 보성 북대 선영(화장) *연락처: 227-4381	<b>301호 故한계순 님(여/91세)</b> 子/子婦: 임동주/지아숙, 홍정/김정덕 女/婿: 안영순/김명래, 영숙/김일기, 영남/장경주 孫: 영진/변대식, 영옥/우영근, 영희/김상민 *발 인: 11월 29일 *장 지: 보성 특향 선영 *연락처: 227-4382
<b>101호 故이희영 님(여/61세)</b> 子: 이덕훈, 영주, 장주 *발 인: 11월 2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b>102호 故윤진서 님(남/71세)</b> 子/子婦: 윤구상/김미자, 구태/조선사 女/婿: 윤막비/김해기 *발 인: 11월 29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